

교회소식

1. 교회 창립 22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온 모든 성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갈보리 공동체를 허무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 됨을 힘써 지키며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다음 주일만 예배 시간이 10시로 변경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배를 마친 후 공동체별로 야외로 나가시거나 밖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3. 금요 저녁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4.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아동부 수련회가 7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6.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과 권사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7. 청년부 수련회에 협조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 교회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9.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있음에 감사와 한 식구 됨의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J u l y

교회사역일지

7월 3일(토)
중고청 찬양 집회
7월 16(금)-17일(토)
청년부 동계수련회
7월 18일(주일)
창립주일
7월 28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7월 25일 (주일)
이정인 집사
7월 28 (수)
임태원 집사
8월 1일 (주일)
현석호 장로
8월 4일 (수)
한누리 집사

7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김병진, 김명춘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http://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창립 22 주년 연락 예배

23권 29호
2021.07.18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선교란

이번 주는 네팔과 인도 전기봉 선교사 소식입니다.

갈보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로 함께해 주시니 뭐라 말씀을 올려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인도 현지에서 8군데 성전 공사를 진행하다 코로나로 잠시 현장을 떠났는데 1년을 넘어 2년, 언제 선교지로 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 막막할 뿐입니다.

LA에 들어온 김에 과테말라 농장지로 선교 답사차 갈려고 하지만 남미 지역 치안이 불안하고 코로나가 심하다고 만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로 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지역 국가들이 과일을 재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근래에 수입 업자들이 과일이 실하지도 않고, 당분 함량도 부족해서 수입선을 바꾸는 통에 농장주들의 근심이 많아 산성 토양을 퇴비로 동물들 배설물 등으로 토질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한국)에서 유기농 퇴비를 지난 3월에 500톤을 수입했는데 효과는 좋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제가 현지에 들어가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토질을 바꾸고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를 하면 어떨까 해서입니다. 티베트, 네팔, 인도 등 서남아시아 힌두권에서 20여 년을 했으니 선교지를 남미로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이 맞물려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70이라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할 생각은 없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던 길 계속 가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파송교회, 후원교회 없어 오늘날까지 사역해 왔듯이 코로나 역병이 안정되면 중단됐던 인도 현지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선교지를 옮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후원이 계획되고 재정이 확보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저의 선교사역 20여 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 후원자가 나타나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그러다 보니 많은 성전을 산골에 벽지에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한두 푼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100% 순조롭게 마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나면 현지 목사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요구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마무리를 못하고 철수하는 경우, 자재를 훔치고 속여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래저래 속상한 일로 심장 스탠드를 5개하고 2019년도에 목젓 밑에서부터 배꼽 위까지 열고 심장 바이패스를 2개 하고 담석증 제거 수술을 2차례하고, 건축자재 신고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다 경운기가 산 밑으로 굴러 머리가 깨져서 골수술을 하고 중국 남부 지방 산악지역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 국경수비대와 다툼이 있어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아 앞 이빨 3개가 부러지고 오해와 누명, 아체가게 쓰레기 더미에서 관찮은 야채를 골라 비닐 봉지에 넣으며 계속 쭈고 있는데 도둑으로 몰려 물매를 맞고 안경도 짓밟혀서 박살이 나고 눈 두덩이가 부어올라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으로 머리가 뜯기고 그러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LA 광야 워터 주방 공사와 지하수 공사를 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갈 바를 몰라 사막의 열기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립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전 이전도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장연식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6:11-16
경	봉	Scripture	디모데전서 6:11-16
설	교	Sermon	선한 싸움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60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7월 11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버지> 창세기 24:1-9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1).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 말씀하시며 복 자체로 부르셨기에 세상이 복의 기준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복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오해하면 늘 시험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롬 8:28).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준비를 통해 믿는 자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생명을 거는 약속으로 준비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자기의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넣고 한 약속은(2,9) 할례와 같이 생명을 거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생명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결혼뿐 아니라 지금 하는 모든 일도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성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고전 4:1-2). 하나님은 그냥 충성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계 2:10).

2) 결혼의 기준을 거룩에 두고 준비했다: 비록 60년 넘게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신부를 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3-4)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신 7:3-4). 신앙적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며 돈 버는 목적도 거룩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고전 10:23).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에 합당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과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곧 거룩이며 거룩을 모든 일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영적 이해가 있는 여인을 구했다: 아브라함은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5-6).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 맹세가 상관없다고 말하며(8) 준비의 초점을 여자가 아닌 땅에 두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자기의 아들과 그 아내에게까지 적용됨을 믿었습니다. 이삭과 결혼할 여인은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는 여인, 즉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여인, 주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는 여인이어야 합니다(시 119:105).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분명히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종의 앞에 보내실 것을(7) 확신했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확신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복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창립 22주년을 맞아 변화와 성숙함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2.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더욱 신앙의 열심을 내도록.
3. 현실의 어려움 속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창립주일에 배순서

2021년 7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인도자 이태한 목사

찬 양	연합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35:2-3 인도자
✳찬 송	8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다함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축 시 낭 송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수열 목사
찬 송	208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김병진 목사
영 상 1	나에게 갈보리 교회는 말은이
축 하 송	아동부, 청소년부
영 상 2	선교지에서 캄보디아, 통가, 바누아투
성 경 봉 독	로마서 1:17, 마태복음 16:17-18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We are the Church 나무십자가찬양대
	모두 함께 찬양해

설 교	변하지 않는 복음, 변해야 하는 교회	이태한 목사
세 례 식		집례자
축 하 특 송	시편 84편 & 지금 우리가	2남여선교회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공 동 성 경 읽 기		다함께
✳응 답 송	171장 (1절)	다함께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1999년 오클랜드 시내 폰손비에 세워진 후 몇 군데 교회당을 옮겨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t. David 교회에 이르렀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옛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거두어 옮겼는데 옮길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의지하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 하에 움직였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교회 안에 여러 지체인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좇아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하나 되어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이 지금처럼 크게 강조되었던 적도 없을 것이다. 또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초대 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 변천의 역사를 거듭해 왔지만 교회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전달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전승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이웃과 나누는가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와 다가올 다음 세대들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요한계시록 1:8b).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앞으로 100년 후 2121년 갈보리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할 것, 변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잃어버린 것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립 22주년을 즈음하여 생각해 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것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석호 장로

